6년간 8293가구 정착…해남 귀농·귀촌 선진지로 뜬다

지난해 귀농인만 123명…유입 인구 증가율 전남 1위·전국 3위

농지부터 주택 수리·임대까지 체계적인 원스톱 지원정책 효과

해남군이 지난해 귀농인 유입 인구 증가율이 전남 1위(전국 3위)를 달성하는 등 귀농·귀촌 선진지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해남군은 2019년 귀농·귀촌 유치 이후 현재까지 6년간 8293가구(귀농 847가구·귀촌 7446가구), 9482명(귀농 1014명·귀촌 8468명)이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귀농인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해남으로 이주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고, 귀촌인은 농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남군은 지난해 귀농인 유입이 총 123명으로 전남지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숫자다.

해남군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경지면적과 친환경 인증 면적을 보유하고, 다양한 특화작목 등 농업기술이 잘 보급돼 귀농인들의 정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남군은 예비 귀농인부터 실제 정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의 초기 상담과 더불어 농지 확보, 주택 수리·임대 지원, 귀농 창업자금 연계 등 행정·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사비 지원, 영농 창업 상품권 등 경제적 혜택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귀농 희망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영농정착 확대 지원사업'을 통해 초기 종자 구입비부터 단계별 포장박스 제작, 홈페이지 구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남군은 앞으로도 청년 귀농인 유입 확대와 창업 지원 강화,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정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은 단순히 귀농을 위한 땅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라며 "더 많은 이들이 해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운용 교육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12일 개장…전국 맨발 걷기 대회

개장 기간 다채로운 행사

고운 모래와 해송 숲, 탁 트인 청정 바다를 자랑하며 남해안 최고 휴양지로 꼽히는 완도군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오는 12일 개장한다.

완도군은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개장 기간 모래조각 전시, 비치 발리볼 대회, 플라이 보드 쇼, 버스킹 공연 등 '해양치유와 바캉스'를 접목한 풍성한 콘텐츠를 마련한다.

개장일에는 '완도, 치유의 파도길을 걷다! 바다를 품다!'를 부제로 전국 맨발 걷기 축제가 개최된다.

전국 최대 규모 크로스핏 대회인 '2025 SUFF(Summer Ultimate Fitness Festival)'가 이날부터 이틀간 명사십리(완토리니)에서 열린다.

개장일 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는 '해양치유 치맥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맥주 바와 잔치 콘셉트의 주막, 푸드 트럭, EDM 파티, 래퍼 공연, 농구 게임·다트·인형 뽑기 부스 등을 운영한다. 지난해 치맥 페스티벌에는 4000여 명이 다녀가며 호응을 얻었다.

신지 명사십리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해수욕장에 부여되는 국제 인증인 '블루 플래그'를 8년 연속 인증받은 곳으로, 세계 해수욕장 5000여 개 중 10개만 지정되는 '우수 해수욕장(Special mention)'으로 명실상부 남해안 최고의 휴양지다.

지난해 신지 명사십리에서 열린 해양치유 치맥 페스티벌.

완도군 관계자는 "신지 명사십리를 완도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해 피서와 치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웰니스 관광지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암 월출산 기찬랜드 물놀이장 12일 개장

개장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영암 월출산 기찬랜드가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기찬랜드는 월출산 자락의 맑은 계곡수와 천연지하 암반수를 활용한 친환경 물놀이장으로, 다양한 크기의 야외 풀장과 실내 물놀이장이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개장일인 12일에는 ▲아프리카 타악 퍼포먼스 ▲맨손 장어잡기 체험 ▲풍선 아트 ▲페이스 페인팅 등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은 매년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지역상생을 위해 운영되는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관에서는 지역 농축협과 농장주들이 직접 생산한 여름 대표 과일과 무화과 아이스크림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작가와 협업한 비치타올, 방수팩, 보냉백, 큰바위얼굴 티셔츠 등 여름 시즌 한정 기념품도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비눗방울 놀이 ▲물총대전 ▲자석 낚시 ▲초크아트 등 어린이와 가족 대상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된다.

기찬랜드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입장료 50% 영암사랑상품권 환급 제도를 올해도 유지한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목포어울림도서관 여름방학 7개 강좌

성인·초등 대상 무료 운영

목포어울림도서관이 8월까지 4주간 주·야간으로 나누어 성인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성인 대상 야간 강좌로 플로리스트 취미반,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내가 만든 세상! 건축 교실, 알록달록 민화 교실, 알콩달콩 동화구연, K-POP 방송댄스, 그림책과 떠나는 세계여행, 흙 놀이 도예 체험 등 다채롭고 창의적인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10일부터 21일까지 목포시통합도서관 누리집(http://www.mokpolib.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목포어울림도서관(061-270-1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어울림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과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진도군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2기 60명 등록 성료

진도군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2기 등록을 마무리했다.

진도군은 '바다 건너 건강 잡으러 가자!'라는 구호로 지난달 19일 조도면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IoT)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의 2기 신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등록에서는 섬의 특성상 병원 접근성이 낮은 의료 취약지 섬 지역의 만성질환자 어르신 10명을 등록해 도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기반을 강화했다.

2기 신규 등록자 60명은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로, 스마트폰과 연동된 블루투스 기기(손목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 측정기, 체중계 등)를 통해 6개월간 비대면 건강관리를 받게 된다.

해당 사업은 진도군 보건소에서 실시간으로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다가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또 대상자에게 악력기, 운동밴드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저염식 식이요법과 근력운동 등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건강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진도 조도보건지소에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2기 신규 등록 절차를 완료한 어르신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보건소 담당자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기반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해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목포기독병원 전경.

목포기독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사업 선정

지역 중증 응급환자 치료 강화

목포기독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외과계 응급 복부 수술 지원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응급수술 공백 해소를 위해 24시간 응급 복부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에서 응급 복부질환 환자에게 골든타임 내 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연간 50건 이상의 복부 응급수술 실적을 보유하고, 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 포함 총 3명 이상의 외과 전문의를 확보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병원들이 선정됐다.

시범사업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효과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할 때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목포기독병원 김근호 대표원장은 "이번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은 주민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복부질환 응급수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야간과 주말에도 수술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통해 지역 응급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 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목포기독병원 외과에서는 서남권 유일 맘모톰수술 4000 사례 이상으로 유방 갑상선 전문병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 응급복부수술 관련 수술 또한 급성충수염 3000 사례, 복강경담낭수술 1300 사례 이상으로 더욱더 고도화된 응급수술 역량을 갖추게 되어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섬 뒤덮은 황금빛 여름의 향연

11~22일 '섬 홍도 원추리 축제'

신안군이 오는 11일 부터 20일 까지 '섬 홍도 원추리축제'를 연다.

신안군은 섬 홍도 원추리정원에서 '2025 섬 홍도 원추리축제'를 개최 여름철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홍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생 원추리 군락지로 매년 7월이면 바다와 맞닿은 원추리정원에 수십만 송이의 샛노란 원추리가 만개하여 장관을 이룬다.

천연의 신비를 간직한 섬 '홍도'는 천연기념물 제170호(1965년 지정) 지정되어 우리나라 천연보호구역 중 면적으로 최대이며 서해 한가운데 떠 있는 자연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2025 섬 홍도 원추리축제'는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드는 생태축제로 바다에서 불어오는 여름 바람과 간간이 내리는 여름비가 어우러져 원추리꽃의 생기를 더하며 섬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들었다.

원추리 축제 포스터.

신안군 관계자는 "천혜의 홍도 10경과 샛노란 원추리꽃 향연을 보면 뜨거운 여름날 오아시스처럼 청량한 시간을 선사 받아 가족과 연인들이 행복을 충전하는 힐링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몰 '한우농가 기 살리기' 14~27일 한우 25% 할인 행사

영암군이 14일부터 27일까지 영암 몰에서 고품질 영암 한우를 25% 할인하는 '한우농가 氣(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비자들에게는 합리적 가격에, 구제역 피해 농가에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응원의 장으로 마련했다.

영암몰에서 영암축협은 1++ 등급 등심·안심·채끝살 300g 단품 등 17개 품목을 할인한 가격에 내놓는다. 삼호 명품관은 1++ 채끝 등심 300g 등 3개 품목을 할인 제공한다.

영암몰은 ▲수·금요일 특가 ▲신규 가입 이벤트 ▲리뷰 이벤트 등 풍성한 혜택을 선사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번 프로모션으로 영암 한우 농가와 전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 강화하겠다"라며 "영암 축산농가를 응원하는 프로모션에 전국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